승가공동체 회복 위한 '비구니 수행결사'

전국비구니회, 4월 30일 발족식

수행결사문 · 청규 공개
"청정승풍 마중물되겠다"
선학원특위 공식출범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비구니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결사가 시작됐다. 탈종교시대, 4차산업혁명에 직면해 불교의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불법문중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부처님 정법을 이어나가기 위해, 현대사회에 맞는 수행청규를 제정하고 함께 수행하며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4월 30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비구니승가공동체 수행결사 발족식을 봉행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선원장 성본 스님의 대표낭독으로 '비구니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결사문'과 '비구니 수행결사 청규'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행결사는 모든 비구니스님들이 저마다 자리한 곳에서 수행자의 근본정신을 회복하고 시대와 함께하는 승가공동체로서 결속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회주는 전국비구니회장 당연직 소임으로 본각 스님이 맡았으며, 결사대중은 증명대중과 발기대중, 근본대중, 참여대중으로 구분된다. 현재 증명대중은 원로의원 25명, 결사를 제안하고 결사의 운용을 주도한 발기대중은 50명, 근본대중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과 집행부 대중 9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대중은 전국비구니회 회원으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비구니스님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수행결사문에서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금 승가는 계율이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이기적인 삶에 안주하는 등 세속화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불교의 존립은 물론 승가라는 이름조차 잊혀질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부처님께서 깨달음 이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법을 전하고 승가를 이루신 일이며 불교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온 것도 승가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 사람의 뛰어난 비구니를 기대하기 보다는 비구니 승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출가 본명의 자세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30일 전국비구니회관서 비구니승가공동체 수행결사 발족식을 봉행했다.

수행결사 실천사항은 세가지로 규정됐다. △비구니승가대중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삼장과 선어록을 독송하고 수행정진한다 △시대에 맞는 청규로서 수행공동체의 순수성을 보호한다 △수행결사의 생활 청규를 만들어 각자의 처소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출가자들이 각자 처소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늘 비구니승가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수행가풍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비구니수행결사 청규는 결사대중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바람직한 출가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총칙과 구성 및 직제, 운영과 의무, 수행규범, 생활규범 등 5장으로 구성됐으며, 비구니승가가 지켜야 할 생활윤리와 대비원력을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다함으로서 비구니 출가정신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수행결사는 본각 스님이 이미 20년 전부터 구상해 온 사안이다. 본각 스님은 "이미 수행에 매진하는 비구니스님들이 많은데 수행결사를 이어가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이번 결사는 어른 스님들의 원력이 서린 전국비구니회관을 수행거점으로 삼아 비구니스님들이 어떤 소임을 맡고 있든 어떤 포교를 하든, 올곧이 수행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사"라며 "사찰을 운영하고 포교에 매진하다보면 스님들이 오롯하게 선방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 출가의 근본이 수행이기에 그 수행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첫 수행정진에 들어간 결사대중들은 앞으로 매월 2회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정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선학원특위)를 공식출범하고 선학원 도제 등 비구니 스님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개진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장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부위원장은 현정 스님(수석부회장)과 혜욱 스님(운영위원회 수석부의장), 간사에는 심원 스님(감사)이 선임됐다. 전국비구니회 구성원의 20%가 넘은 1300여 비구니스님들이 선학원에 소속돼 있는 만큼, 선학원 문제는 전국비구니회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비구니스님들의 권익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 선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위원장 본각 스님은 "지난 2년간 전국비구니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고민하고 내외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선학원이었다"며 "이제부터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비구니 스님들의 고충을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현정 · 라마 씨 환경연대 홍보대사로

5월 4 · 6일 위촉장 수여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홍보대사로 임현정 피아니스트와 요술당나귀 리더 라마 씨가 위촉됐다.

불교환경연대는 5월 4일 요술당나귀 리더 라마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5월 6일 임현정 피아니스트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현정 피아니스트와 가수 라마 씨는 향후 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생명살림 가르침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두 사람은 예술 외에도 환경과 인권 등 대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가수 라마가 속해있는 요술당나귀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어쿠스틱 밴드로, 그린아티스트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8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신곡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발매하는 등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왔다.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는 최연소 베토벤 소나타 전곡 음원을 발매, 2012년에 한국인 연주자 중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동시에 스위스 인종차별 금지운동주간의 대모로 임명된 데 이어 유럽주간의 대모로도 임명되는 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 같은 사회적 활동으로 2018년에는 스위스 뉴샤텔 국제문화상을 수상했다. 송지희 기자

국회정각회 · 경찰청, 점등식 봉행

4월 29일 국회 잔디광장서
원행스님 등 종단대표 참석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정각회와 경찰청 불자회 등 직능단체의 봉축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각회는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불기 2565년 국회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원욱 정각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에 담긴 발원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를 다짐했다. 스님은 "인류의 성인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코로나로 힘든 사회에 국민과 불자들에게 지남이 되어 꺼지지 않는 등불로 든든한 의지처가 됐다"며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시고자 치열한 수행과 지극한 깨달음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켠 연등은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까지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9일 진행된 국회 정각회 점등식.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회가 분열되고 격차가 확대되는 때일수록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통합하는 불교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이 필요하다"며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여긴다는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가르침이 절실하다. 국민통합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회도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월 6일에는 서울 경찰청불자회가 경찰청 1층 로비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은 개회사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점등,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말, 원행 스님의 기념사,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연등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요즘, 경찰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라가 더욱 발전되고 안정되어 갈등과 불신, 폭력과 무질서가 없는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송지희 기자

"불교문화재 보존 관리에 노력해달라"

원행 스님, 문화재위원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 스님들에게 불교문화재 보존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문화재위원 스님 9명은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신임 문화재위원은 지난 4월 30일 위촉됐으며, 스님 문화재위원으로는 건축문화재 분과에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동산문화재 분과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사적 분과에 조계종 종회의원 각림 스님, 천연기념물 분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 매장문화재 분과에는 조계종 문화특보 혜일 스님, 근대문화재 분과에 중앙종회의원 경암 스님, 민속문화재 분과에는 중앙종회의원 철우 스님, 세계유산 분과에는 운문사 주지 운산 스님, 궁능 분과에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이 위촉됐다. 신성민 기자


신임 문화재위원들이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승려복지 위한 후원금 전달 이어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승려복지를 위한 승보공양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는 5월 4일 재단법인 보덕학회와 행심회, 개인 등 최근 이어진 승보공양 후원금 전달 상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 중 원소 스님(재적본사 해인사)은 승려복지제도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로, 승려복지회를 방문해 100만 원을 승보공양 후원금으로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재단법인 보덕학회(이사장 유홍우)도 5월 3일 1000만 원을 승보공양으로 후원했다. 승려복지회 측은 "보덕학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 여여선원 불교대학 5기생 모임인 행심회도 최근 승보공양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